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하경(下經)

상경(上經)은 건(乾)·곤(坤)을 처음에 두었고, 하경(下經)은 함(咸)을 첫머리에 놓고 항(恒)으로 잇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서괘(序卦)의 설명이 곡진(曲盡)하다. 그러나 '설괘(說卦)에 "천지가 자리를 정하고, 산과 못이 기운을 통하고, 우레와 바람이 부딪히고, 물과 불이 서로 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팔괘(八卦)의 상(象)이다. 상경은 건·곤을 처음에 두고 감(坎)·이(離)로 끝내고 있다. 건(乾)은 남쪽, 곤(坤)은 북쪽, 이(離)는 동쪽, 감(坎)은 서쪽으로 '천지와 사방의 정해진 자리'이고 대대(待對)의 체(體)이니 천도(天道)이다. 하경은 태(兌)와 간(艮)으로 구성된 함(咸)괘와 진(震)과 손(巽)으로 구성된 항(恒)괘를 첫머리에 두었는데, 이는 바로 '산과 못이 기운을 통하고 우레와 바람이 부딪힌다'는 것이고 유행의 작용이니 인도(人道)이다. 천도는 체이므로 상경에서는 순괘(純卦)를 처음과 끝에 두었고, 인도는 체의 작용이므로 하경에서는 함께 이루는 괘로 처음과 끝을 삼았다.

사람은 만물의 우두머리이고 천지에 참여하여 삼재(三才)가 되는 존재이다. 그 때문에 함께 이루는 괘를 함(咸)·항(恒)에 빗대어 인도를 세웠다. 인도는 부부로부터 시작된다. 함은 부부의 처음이고 항은 결혼 생활의 상도이다. 그 시작을 바르게 할 수 있으면 가정생활의 도리에 허물이 없어 바르게 마칠 수 있다. 함괘에서는 "바르게 하면 이롭고 여자를 취하면 길하다"라고 하고, 항 괘에서는 먼저 "허물이 없다"고 한 뒤에 "바르면 이롭다"고하였다. 이미 시작이 바르므로 허물이 없고, 또 가정생활의 도리를 바르게 한 뒤에야 갈 곳이 있으면 이롭고 바르게 끝낼 수 있다는 뜻이다.

함(咸)

'단전(彖傳)' 하늘과 땅이 감응해서 만물이 화생(化生)하고, 성인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천하가 화평하다[天地感而萬物化生, 聖人感人心, 而天下和平].

천지의 도와 성인의 마음은 동일한 지성(至誠)이다. 성인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감동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늙은이를 편안케 하고 친구끼리 신뢰케 하며 나이 어린 사람을 품어준다"는 것이 바로 그들을 감동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각각 그 이치에 따라 순응하여 자연스레 사람의 마음에 들어맞는 것이 있어 기쁘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를 미루어 병들어 파리하고 질병 있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얻고, 홀아비·과부·고아가 부양받게 되는 것에까지 이른다. 그리고 날짐승·들짐승·물고기·자라까지도 모두 순조롭게 하여 만물이 각각 자기의 정당한 자리를 얻도록 한다. 성인이 어찌 마음을 쓰겠는가? 그 이치에 따를 뿐이다. 예를 들어 순(舜)이 사흉(四凶)을 죄주자 천하가 감동하여 복종하였으니 순이 어찌 천하가 모두 감동하여 복종하기를 바랬겠는가? 다만 사흉이 죄줄 만하여 죄 준 것이지 조금도 사사로운 의도가 없었다. 그 때문에 자연스레 천하가 감동하여 복종하였으니 이는 형벌을 사용함이 죄에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마음가짐과 행동을 꾸미고 도에 어긋나게 명예를 구하면서 사람 마음이 기쁘게 복종하기를 바라는 것은 성인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아니다.

항(恒)

'단전(彖傳)' 우레와 바람이 서로 함께 한다[雷風相與].

이는 아마도 '바람과 우레'여야 할 듯하다. '단전'의 용례에 따르면 괘상(卦象)과 괘덕(卦德)을 말할 때는 모두 내괘(內卦)를 먼저 하고 외괘(外卦)를 뒤에 하기 때문이다. 서합(噬嗑)괘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대장(大壯)

'단전(彖傳)' 바르고 커 천지의 실정(實情)을 볼 수 있다[正大而天地之情可見矣].

내가 생각건대, 우레가 땅 속에 있어 복(復)이 되면 "천지의 마음을 보겠구나!"라고 하고, 우레가 하늘 위를 운행하는 대장(大壯)이 되면" 천지의 실정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마음'은 막 움직이기 시작한 초기를 가리키며 미세하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문의 형식을 취하였다.

'기호(其乎)' 두 글자는 의문사이다. '실정[情]'은 이미 발한 것을 가리키며 드러나 쉽게 볼 수 있으므로 그 글이 단정적이다. '가의(可矣)' 두 글자는 단정하는 말이다. 하나의 양이 막 싹터 땅속에서 움직이므로 미세하고 보기 어렵다. 네 양이 이미 장성하여 하늘 위를 운행하므로 드러나 쉽게 볼 수 있다. 함(咸)괘와 항(恒)괘 그리고 췌(萃)괘 에서는 만물의 실정을 아울러 언급했으나 이 괘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은 만물에는 큰 것 작은 것, 바른 것 바르지 않은 것이 있고 가장 바르고 큰 것은 오직 천지이기 때문이다. 함이 통할 수 있고, 항이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췌가 모을 수 있는 것에서 천지 만물의 실정이 비록 높고 낮음이 다르고 크고 미세함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이치가 하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論語解說(28)

논 어 해 설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지난호에 이어〉

제 8 편 태 백 (泰伯)

제9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백성을 이치에 따르도록 만들 수는 있으나 그 이치를 다 이해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 하다."

[원문]

子曰 民은 可使由之요 不可使知之니라. [자왈 민은 가사유지요 불가사지지니라.]

[이해]

백성은 무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정자[爲政者]가 당연한 이치를 내세워 그것에 따르게 만들 수 있으나 모든 백성이 다 도리[道理]를 깨우치게 만들어서 다스려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제10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용맹을 좋아하고 가난함을 싫어하는 것은 난동을 일으킬 징조다. 사람이 인자하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싫어하는 것은 환난을 초래하게 된다."

[원문]

子曰 好勇疾貧이 亂也요 人而不仁을 疾之已甚은 亂也니라. [자왈 호용질빈이 난야요 인이불인을 질지이심은 난야니라.]

[이해]

용맹한자가 빈곤을 혐오하는 것은 이익의 유혹에 넘어가 악을 행하기 쉬운 요소이고. 선하지 못함을 지나치게 미워하는 것도 남과 대립이나 원망을 불러 화난[禍難]을 초래하기 쉬움을 경계하라는 말이다.

제11장

공자가 말하였다. "만일 주공의 버금가는 지능과 기예를 지닌 아름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고 또 인색하다면 그 나머지는 더 살펴볼 것이 없다."

[원문]

子曰 如有周公之才之美라도 使驕且吝이면 其餘는 不足觀也已니라. [자왈 여유주공지재지미라도 사교차린이면 기여는 부족관야이니라.]

[이해]

사람에게 교만과 인색은 덕을 허물어뜨리는 크나큰 장애물이어서 늘 경계하고 조심하여 멀리해야 되니 교만은 인색의 가지와 잎이며 인색은 교만의 뿌리와도 같이 어리석음을 키워내기 때문이다.

제12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삼년동안 학문을 하면서도 벼슬할 생각에 이르지 않기란 쉽게 취득할 수 없는 경지이다."

[원문]

子曰 三年學에 不至於穀을 不易得也니라.[자왈 삼년학에 불지어곡을 불역득야니라.]

[이해]

오랫동안 학문[學文]을 닦아 지식을 쌓고 나서 단지 그저 아는 것에 만족하고 벼슬에 뜻을 두지 않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공자[孔子]의 제자인 자장[子張] 같은 인물도 벼슬하는 것에 대해 공자에게 질문 한바 있음을 미루어볼 때 보통사람들이 부귀영화에 유혹을 쉽사리 거부하기 힘든 건 당연지사일지도 모른다.

제13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굳게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죽음으로 좋은 도[道]를 지켜라.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말고. 혼란한 나라에서 살지 말며. 세상의 정도가 행해지고 있을 때는 자기를 들러내고. 도가 없을 때는 들어가 숨어라. 나라의 정도가 행해지고 있는데도 빈천하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나라의 도가 없는데도 부귀를 누리고 사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원문]

子曰 篤信好學하며 守死善道니라 爲邦不入하고 亂邦不居하며 天下有道則見하고 無道則隱이라 邦有道에 貧次賤焉은 恥也며 邦無道에 富且貴焉은 恥也니라.[자왈 독신호학하며 수사선도니라 위방불입하고 난방불거하며 천하유도즉견하고 무도즉은이라 방유도에 빈차천언은 치야며 방무도에 부차귀언은 치야니라.]

[이해]

올바른 배움을 지켜내고 거취[去就]를 외롭게 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능히 부귀와 빈천의 자재[自在]하되 그 한계가 명확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라는 뜻이다.

제14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직무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원문]

子曰 不在其位하여는 不謨其政이니라.[자왈 부재기위하여는 불모기정이니라.]

[이해]

자기 의무도 아니고 책임도 없으며 남의 소관하[所管下]에 놓여 진 일에는 쓸데 없이 비평하거나 간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제15장

공자가 말하였다. "대사[大師] 지[摯]가 처음 연주를 시작할 때에는 관저[關雎]의 마지막 장[章] 음악이 아름답고 성대하게 귀에 가득 차 왔었다."

[원문]

子曰 師摯之始에 關雎之亂이 洋洋乎盈耳哉라.[자왈 사지지시에 관저지란이 양양호영이재라.]

[이해]

여기서의 사는 노나라 악사장 지를 말한다. 본문 난은 음악의 종장을 가리키며 공자가 위나라로 갔다가 노나라에 되돌아 와서는 음악의 그릇된 부분들을 바로잡았는데 지난날 지가 노나라의 악사장으로 취임했을 때 연주했던 관저의 마지막 장을 화상한 공자의 말이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기고 〈69회〉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百忍) 권준(權晙) 장군〈21〉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그런데 수(隋)나라에 이르러서는 양제(煬帝)의 수백만 대병을 전멸시킨 까닭에 위무(威武)가 전 세계를 진경(震驚)하는 동시에 중국과 마주서서 문화의 발전이나 고유한 국풍(國風)이 매우 발달되어 정치군사 그뿐만 아니라 엄연히 일대제국(一大帝國)이 아성(砑成;빛나게 완성)된 고로, 당태종이 중국이외에 고구려가 있음을 질시(嫉視)하여 「정관의 치(貞觀之治)」 이십년간에 표면으로는 안일(安逸)하게 제신(諸臣;여러 신하)들과 치국지도(治國之道)를 강론하지마는 그의 머릿속에는 대고구려 작전의 계획이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앞으로 고구려를 치자면 먼저 수양제의 패인(敗因)을 검토 연구하여야 비로소 전략을 결정하겠음으로 이에 아래와 같은 작전계획을 작성하였다.

가. 수양제가 패배한 제 1원인은 정병(精兵)주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병(多兵)주의를 취하여 숫자상으로 병력이 비록 사백만에 달하였으나 전투에 능한 자가 수십만에 불과한 까닭이라 하여, 십년동안 양성한 사병(士兵)중에서 특히 정병 오십만을 선발하기를 경정하였다.

나. 수양제가 패한 제 2원인은 고구려 변경부터 잠식하지 아니하고 대병력으로 평양을 침입하였다가 양도(糧道)가 단절되는 동시에 후원병도 두절된 까닭이라 하여 평양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먼저 요동각군(遼東各郡)을 정복하기로 결정하고

다. 수양제가 패한 제 3원인은 수백만 정벌군으로 하여금 군량을 각자 분담(分擔)하여 운반케 하고, 기타는 해군으로 하여금 선박을 운용하여 각지 창고에 있는 양식을 수로로 운반하여 군량을 충당케 하다가 선박이 고구려 수군에게 전멸당한 까닭이라 하여, 국내에 우마양(牛馬羊) 등의 목축을 장려해서 전투병 1명에 기마(騎馬)와 농우(農牛) 각1필과 양 기필(羊幾匹 ; 양 몇 마리)을 분배하여 우(牛)로 하여금 운반케 해서 양선(糧船;양곡선박)을 기다리지 않고 이것으로써 군량을 충당하는 동시에 또한 우마양 등을 먹이기로 결정하고

라. 수양제가 패한 제 4원인은 당시 우방각국의 원조가 전무하고, 오직 수군(隋軍)으로 고구려와 싸운 까닭이라 하여, 신라 김춘추 걸원(乞援;원병을 구걸)을 기회로 삼아 공수동맹의 약(約)을 체결하여 고구려의 후방을 요란키로 결정하였다.

당태종은 우(右)와 같은 작전계획을 작성한 후 서기644년 7월에 군대를 낙양(洛陽; 지금의 하남성)에 집중하여 군량은 영주대인성(營州大人城;지금의 진황도秦皇島)에 집중하고 음주도독(都督) 장검(張儉)을 명(命)하여 유주와 영주(幽營) 2개 주(州)의 병마(兵馬)를 솔(率)하고 요동부근을 유격(遊擊)해서 위선 고구려의 변경을 요란케 하고 또 군량관 염입덕(閻立德,?~656)을 명하여 모든 군량은 대인성으로 운송케 하며 동년 10월에는 형부상서 장량(張亮)으로 하여금 평양도행군대장을 삼고 강회(江淮)의 정병 4만과 장안(長安) 낙양의 용사(勇士) 3천을 거느리고 해도(海道;바닷길)로 떠나 명(名)은 평양으로 향한다하나 기 실(實)은 요하로 직행케 하고 이적(李勣,584~669)으로 행군대원수를 삼어 정병(精兵) 50만을 거느리고 육로로 요동을 추(趨)하여 양군(兩軍)이 요동에서 회사(會師;군사를 모이게)케 하고 당태종은 친히 어림군(御林軍) 20만을 거느려 후속부대가 되었다.

6. 연개소문의 방어와 진공의 전략

당병이 침입하다는 급보를 접한 개소문은 즉시제장(諸將)을 소집하고 저적(抵敵;적에 저항)할 계획을 강구(講究)하는데, 혹은 평원왕(平原王, 재위559~590) 대에 온달(溫達,?~590) 주(周;북주)와 싸운 것과 같이 기병으로 요동평야에서 격전하여 승부를 결정함이 가하다하며, 혹은 영양왕(嬰陽王, 재위590~618) 때에 을지문덕(乙支文德)이 수(隋)나라와 사운 것과 같이 인민과 식량을 성내(城內)로 반입한 뒤에 평양에 유입(誘入)하고 양도를 절(絶;끊어)하여 적의 기아를 타서 격파함이 가타하여 중론(衆論)이 분분(紛紛)한지라,

개소문이 이에 말하되 전략은 정세에 따라서 정하는 것인데 금일의 형세는 평원왕과 영양왕 시대와는 달은(다른)지라 었지(어찌) 그때 정세와 같이 역이고(여기고) 전쟁하리오. 금일은 지(地) 택하여 방어하는 것이며 기(機)를 계(階)하여 진공하는 것이 가하지, 어찌 고인(古人)의 성규(成規)를 묵수(墨守)할까 하고 이에 명령을 내려 건안(建安) 안시(安市) 가시(加尸) 횡악(橫岳) 등 몇 개 성읍(城邑)만 고수케 하고 그 남으지(나머지)는 양곡과 초료(草料)를 모조리 운반하거나 혹은 불살라서 적으로 하여금 노략질할 것이 없도록 하고 오골성(烏骨城;지금의 연산?)으로 방어선을 삼고 용장과 군병을 배치한 후 다시 안시성 성주 양만춘(楊萬春)과 오골성 성주 추정국(鄒定國)에게 밀고하여 말하되, 지금 당인(唐人)이 수나라의 패전을 삼가 양식에 특히 주의해서 장래 군량의 결핍을 보완하기 위하여 군중(軍中)에 우마와 양떼(羊群)들을 무수히 가지고 왔으나, 장치 가을 겨울이 되면 모든 풀들이 고사하고 강물도 결빙한다면 수많은 소말 양떼들을 무엇으로 사양(飼養)할이오(하리오) 적도 이러한 약점을 아므로 속전속결을 구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明心寶鑑

명 심 보 감

▣ 正巖 權爀彩 (본원 종사 연구위원)

참고: 불소(不踈)⇒멀리 하지 않음, 소배(少輩)⇒소인배(小人輩), 兮→어조사 혜, 노래후렴 혜, 貧→가난할 빈, 구차할 빈, 退→물러날 퇴, 踈→성길 소, 丈→길 장, 進→나아갈 진, 輩→무리 배, 蘇→차조기 소, 깨날 소, 坡→언덕 파,

明心寶鑑 安義篇(안의편) 解說

안의편(安義篇)은 모두 3篇으로 구성(構成)되어 있으며,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형과 아우가 기본적(基本的)인 인간관계(人間關係)임을 말 한 것이며 의리(義理)있고 편안(便安)하게 해야 올바른 삶을 누릴 수 있다.

●顔氏家訓에 曰(안씨가훈에 왈) 夫有人民而後(부유인민이후)에 有夫婦(유부부)하고 有夫婦而後(유부부이후)에 有父子(유부자)하고 有父子而後(유부자이후)에 有兄弟(유형제)하니 一家之親(일가지친)은 此三者而已矣(차삼자이이의)라 自玆以往(자자이왕)으로 至于九族(지우구족)이 皆本於三親焉故 (개본어삼친언고)로於人倫(어인륜)에 爲重也(위중야)니 不可不篤(불가부독)이니라.

해설 : 안 씨 가훈에 말하기를 "사람이 있은 뒤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은 뒤에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은 뒤에 형제가 있는 것이니, 한 집안의 친함은 이 세 가지 뿐이니라. 여기에서 나아가 구족(九族)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삼친(三親)에 뿌리를 둔다. 그러므로 이 삼친은 인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 돈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고 하였다.

참고 : 안씨가훈(顔氏家訓)⇒ '안 씨 가의 가훈'이란 뜻으로 남북조시대 북제(北齊)의 안지추(顔之推)가 지었으며 두 권으로 되어있다. 안지추는 남조 양(梁)나라에서 산기시랑(散騎侍郎)을 지내다가 양나라가 서위(西魏)에 멸망한 후 북제(北齊)로 도망쳐 거기에서 황문시랑(黃門侍郎)과 평안태수(平安太守)를 지냈다. 또 북주(北周)가 북제를 치고 뒤이어 수(隋)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면서 북주와 수나라에서 벼슬살이를 하였다. 이러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간 한 사람의 지식인이 자손에게 글로써 인생과 생활지침으로 남긴 책이 바로 [안 씨 가훈]이다.

자자이왕(自玆以往)⇒이로부터 나아가. 구족(九族)⇒구대(九代)를 말 한다. 즉 고조부(高祖父), 증조부(曾祖父), 조부(祖父), 아버지(父), 나(我), 아들(子), 손자(孫子), 증손자(曾孫子), 현손자(玄孫子)까지의 직계 친족(直系親族)을 중심으로 형제(兄弟), 종형제(從兄弟), 재종형제(再從兄弟), 삼종형제(三從兄弟)를 포함하는 동종친족(同宗親族)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이외에 부족(父族) 넷, 모족(母族) 셋, 처족(妻族)등을 합하여 일컫기도 한다. 삼친(三親)⇒夫婦, 父子, 兄弟를 말함. 불가부독(不可不篤)⇒돈독히 하지 않을 수 없음. 顔→얼굴 안, 玆→이 자, 往→갈 왕, 族→겨레 족, 故→연고 고, 倫→인륜 륜(윤), 焉→어디 언, 어찌 언, 篤→도타울 독, 服→옷 복,

●莊子曰(장자왈) 兄弟(형제)는 爲手足(위수족)하고 夫婦(부부)는 爲衣服(위의복)이니 衣服破時(의복파시)엔 更得新(경득신)이어니와 手足斷處(수족단처)엔 難可續(난가속)이니라.

해설 : 장자가 말하기를, "형제는 손발과 같고 부부는 의복과 같은 존재니 의복이 떨어지면 새것으로 갈아입을 수 있지만 손발이 끊어지면 잇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참고 : 破→깨질 파, 更→고칠 경, (다시 갱), 得→얻을 득, 斷→끊을 단, 處→곳 처, 續→이을 속.

●蘇東坡云(소동파운) 富不親兮貧不踈(부부친혜빈불소)는 此是人間大丈夫(차시인간대장부)요 富則進兮貧則退(부즉진혜빈즉퇴)는 此是人間眞小輩(차시인간진소배)니라.

해설 : 소동파가 이르기를, "부자라고 해서 친하지 않으며 가난하다고 멀리 하지 않음은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서의 대장부라 할 것이요, 부유하면 가까이하고 가난하면 멀리 하는 것은 이는 곧 사람 가운데서 참으로 소인배(소인배)니라."고 하였다.

明心寶鑑 遵禮篇(준례편) 解說

예의(禮義)를 지키는 것은 곧 인간의 근본 양심을 지키는 것과 같다. 예(禮)란 법률(法律) 이전에 이미 인간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規範)이 된다. 예의가 바르다는 것은 곧 질서를 잘 지킨다는 의미도 되며, 질서 있는 행위는 곧 그 사람의 고상한 인격의 표현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양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子曰 (자왈) 居家有禮故(거가유례고)로 長幼辨(장유변)하고 閨門有禮故(규문유례고)로 三族和(삼족화)하고 朝廷有禮故(조정유례고)로 官爵序(관작서)하고 田獵有禮故(전렵유례고)로 戎事閑(융사한)하고 軍旅有禮故(군려유례고)로 武功成(무공성)이니라.

해설 :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한 집안에 예의(禮義)가 있으므로 어른과 어린이가 분별(分別)이 있고, 안방(閨房)에 예의가 있음으로 삼족(三族)이 화목하고, 조정에 예의가 있으므로 벼슬의 차례가 있고, 사냥하는데 예의가 있으므로 군사(軍事)일이 숙달(熟達)되고, 군대에 예의가 있으므로 무공(武功)이 이루어지느니라."고 하셨다.

참고 : 거가(居家)⇒집안, 가정, 遵→좇을 준, 辨-분별할 변, 옳고 그름을 가릴 변, 閨→안방 규, 爵→벼슬 작, 序→차례 서, 전렵(田獵)⇒사냥하는 것, 獵→사냥 렵, 戎→종족이름 융, 도울 융, 싸움수레 융, 융사(戎事)⇒일, 군사 일, 싸움에 관한 일, 군려(軍旅)⇒군대, 규문(閨門)⇒부녀자가 기거하는 안방, 閑→한가할 한, 막을 한, 軍→군사 군, 旅→나그네 려(여), 武→호반 무, 강할 무, 날랠 무, 功→공 공.